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 율법주의      제목 : 생명의 성령의 법      성경 : 로마서 8장 1-11절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8:1-11)

## 용어정리

인격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 (육신, 몸, 영 - 각각의 단어는 인격의

부위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데 아니라, 강조되는 부분을 따라 사용됨. 육신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님.)

육신 - 죄를 짓는 죄인으로서의 사람.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영은 악령과 연합되었다고 보면 됨.

율법 또는 양심 -(의의 기능) 예와 아니오를 구분하는 기준. 이로서 사람들은 동물과 사람을 나누게 됨. 그러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게 되어서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됨.

몸 - 그리스도인의 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된 자의 인격 전체를 말함.(몸을 강조하기 위해서 몸만 사용함)

영(이 또한 통전적 의미의 사람 그 자체 또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데 영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그러나 이 영은 사람의 영이지만, 그 짹이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등으로 전달하려는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식어가 달라짐.)

죽음.

바울서신에는 죽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의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물론 부활과 관련해서는 의학적인 죽음을 의미한 곳도 있다.-로마서에서는 남편의 죽음.)

예; 죄에 대하여 죽었다. - 죄를 주관하는 악령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주권에서 벗어났다. 죄의 유혹에서 멀어졌으며, 죄의 집에서 나왔으며(환경적으로), 죄의 협박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 그러나 우리 속에 죄인으로서의 실존은 남겨져 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죄가 부를 때 대답할 수 있고, 다시금 죄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가능성. (물론 현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해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만.)

- 진실한 그리스도인 안에도 죄가 있다는 것의 실제적인 메카니즘은, 생각이나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죄를 뜻함. 생각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은 영적 체계들(or DNA) 중의 거짓에 관련된 생각을 뜻함. 세포는 습관 혹은 트라우마와 같은 것들로 존재한다.(중독증)

- 특히 죄란 항상 거짓에서 파생하기 때문에, 학습된 거짓 생각(또는 거짓 지식) 속에 있는 거짓의 파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되지 못했을 때 이것들이 죄의 유혹이나 죄의 환경에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공명이 일어남-아직도 어떤 거짓을 믿고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죄의 유혹에 더 강력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보임.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공명이 있을 수 있음.)

- 분명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다시금 관계를 맺어서 그에게 복종하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아닌척하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지는 않는다. 또 분명하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경우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게 된다. 그리고 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것 싫어하면 기독교 윤법주의)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마치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 즉 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감각하는게 아닌,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방비하고 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일종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방식들 중 하나이다.

\*이런 죄에 대한 메카니즘과 용어의 성경적 용법을 무시한 채 교리

적인 흑백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은 억지 해석이나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게 되어 오류에 빠지게 된다.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런데 성경도 분명하게 이원론적이고 흑백논리로 죄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당시에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플라톤의 이원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원론의 영향 때문이다. 플라톤의 이원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분명하고 쉽게 설명되어지는 형식으로 로마서가 써여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가 명작이라고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너희 속에(사람의 영과 육에) 성령이 거하시면.(성령은 영과 몸에 거하신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육신이라는 용어는 마귀의 수하에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영과 육 모두를 포함해서)을 말함. 곧 성령이 주인이시니 너희가 더 이상 마귀의 수하에 있지 않게 됨을 강조하는 표현.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죄의 결과로 죽었다. 이 표현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과 다르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댓가로 대신 죽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내 안에 거하시니 내 몸은 죄의 결과로 죽었다는 뜻.(갈라디아서 2:20)

-죄와 결탁하거나 죄의 종이 되거나, 그래서 마귀의 편에 속하였거나, 죄를 범하는 존재로서의 몸은 ‘육체’라는 단어로 표현함.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가 회복되어 예수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고, 구원의 의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영(그래서 진짜 내 모습을 회복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용법)

### <복습>

하나님은 죄에 해악에 대한 긴급조치로 율법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율법에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죄의 저주를 피하고 그 해악에 대비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죄를 깨닫게’하는 것이다. 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저주가 되는 것, 옳아매는 짐이 되는 것, 그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이 되게 하는 것이 죄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율법으로는 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과,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러나 마귀는 율법을 공격하여 율법을 왜곡시키고 본래의 기능 보다는 엉뚱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특징은 진리의 왜곡,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해도 열매 없는 회개를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수가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대다수는 회개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믿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메시야를 보내 주셨고, 죄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영원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다. 이것을 복음이라 하는데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통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칭의)

이렇게 함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마귀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미(최종적 구원을 끌어당김) 그러나 아직은 아닌(최종적 구원이 이르지 않음) 구원. 이때 율법은? 성령의 법으로 완성되게 하심.(이제 비로소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다.)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  
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5:17)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  
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5:18)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복음 자체를 또한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려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려면 주일성수를 해야 한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떼 먹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 새벽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하더라.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라.’는 등등의 말들이 단순하게 세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세심하게 살펴보면 근거없는 말들은 아니지만,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율법주의적으로도 흐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전히 무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문화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

복음에 율법주의가 끼어 들어오면 당연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게 되고, 현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나 불순종의 습관이 많거나, 유교의 영향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인격적인 부담감이나 장애가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회개나 반성,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용기 등에 있어서 매우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다.

무교의 영향으로 모든 책임을 귀신에게 전가하는 습관은 자기 스스로는 부담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나타남.

반대로 불교적 영향으로는 고행을 통해서 죄를 씻어야 한다는 부담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복음을 부패시킬 계략을 마련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구원파’ 이단이다. (배경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가장 이단스럽지 않으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단이 되었다.)

‘구원파’는 원래 권신찬이라는 장로교목사가 어렵게 어렵게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교회가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교회를 탈퇴하고 다른 신앙운동을 하게 됨.

그후 3개 교파로 나뉘었는데 서로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리들이 대동소이하다.

특히 박옥수씨의 기쁜소식선교회는 장로교의 교리와 똑같다고 주장하고 전혀 이단이 아닌척 하지만, 핵심적인 이단성 교리는 공공연하게 주장하지 않고 교묘하게 내부용으로 사용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단성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구원관.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복음과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데, 이것이 속임수의 진수.

-그들은 구원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틀린말은 아니지만, 야바위꾼들이 하는식의 속임수에 불과함.

-성경은 율법을 먼저 가르침-대속의 필요성 대두-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구원의 완성-성령의 임함-성령으로 전도-성령으로 인한 믿음수여-본인의 믿음으로 회개(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함.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 모든 성도들은 죄사함을 믿고 회개한다. 정죄감에서 회개하는게 아니다.-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개

인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으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절차. 이 후의 회개는 성화를 위한 회개가 됨.)-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함-현저히 죄를 이기고 의를 힘입어 살아감(성화-손을 씻음)

-구원과 (기독교 율법주의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고민이 많음)-이미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달음-회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게 됨(자신의 결단과는 별개로; 자신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정서적인 회심이 없이 예수를 믿게 됨) -영혼을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나 육체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간다고 믿음.

문제점; 회개에 대한 오해. 회개가 어려운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회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함. 나중에 자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됨.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게 아니라,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침.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회개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는 효과를 가져옴.)

-기독교 믿음과 신앙생활의 핵심격인 회개. 머리로 이해됨을 통해 서가 아닌,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야다’가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 곧 회개의 과정. 가장 거룩하고 변화의 구심점이며 실제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핵심적인 신앙여정인 회개를 무기력화시킴. 회개의 핵심은 십자가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율법주의적 회개가 아닌. 회개하고 믿는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단순한 순서를 구원과는 어지럽히면서 사람들을 혼혹하는 것이다.

-복음과 구원을 강조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핵심을 뺀 구원론을 주장하는 꼴이 됨. (회개가 빠진 기독교는 경건의 힘이 빠진 힘없는 율법주의일 뿐.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될 뿐.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이처럼 구원과적 신앙형

태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 그래서 구원파가 다가오면 속 수무책이 됨.)

– 결국 주기도문도 거부하게 됨.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문 때문에.

– 기성교회의 복음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기성교회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이미 기성교회에 있다는 것을 부정함.

– 그래서 기성교회의 성도들 중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믿음의 도리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들의 주요 포교 대상.

–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어지럽혀서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임.

– 오전에는 핵심적인 구원론에 대해서만 말씀 드림.

– 오후에는 기독교 율법주의에 관해서 다룸.

## <찬양예배>

주제: 율법주의      제목: 기독교 율법주의      말씀: 로마서 7장  
14-25절

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롬 7:14-25)

이후 기독교 율법주의에 관한 내용은 오후에 전하기로 함.

–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형태를 무시하면서 결국 전체 경건 생활의 거룩성을 회손함. 기독교 율법주의라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신앙문화를 형성하게 됨.(초창기에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런 기독교 율법주의가 전파됨. 지금도 구원파식 신앙형태가 한국교회에 남아있음.)

(J.N. Darby–영국 성공회 신부로서 우리나라 복음교회의 뿌리가 됨. 그의 세대주의 이론들이 이단들의 뿌리가 됨.–세대주의, 적그리스도론, 말씀에 짹이 있다는 이론, 성경본위이론–문자적해석의 오류, 우상금지–십자가를 우상으로, 성령의 역사 부인, 교회와 예배 부인, 신비를 기복으로 몰아부침.)

– 이런 이상한 이론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에서는 버젓이 경건한 신앙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

– 구원파는 한국교회가 가장 해탈려하는 이단이다.

– 다행히 통합측을 위시로 장로교단들이 신실한 신앙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료>

“첫째,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둘째,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한다. 셋째,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 넷째, 정통교회의 제도(장로, 집사)와 예배 형식, 주일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철야기도, 축도를 무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구원파의 세 계파를 모두 이단이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

▲ (구원파는) 하나님의 영성과 초월성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성과 임재성은 무시한다. (유교적 구조)

▲ 그리스도의 신성은 강조하나 인성은 격하시키며, 죄 사함의 은혜는 강조하면서 율법의 교훈은 무시한다.

▲ 피동적 깨달음에 의한 구원은 강조하지만 의지적인 회개와 인격적인 신뢰(믿음)를 배제한 구원은 기도와 찬양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성경적인 믿음(faith)에는 신뢰(trust)와 확신(belief)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원파의 믿음에는 지식과 이해와 깨달음의 요소가 들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헌신이 빠져 있다.

▲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임과 교제를 강조하여 자신이 속한 교회가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자파 교회에 붙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들림을 받는다는 극단적 세대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종교를 빙자해 상습사기를 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유병언의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 진정한 기도는 성도의 교제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가 주도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며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 구원파에서 주기도나 축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찬양이 아니다)은 죄 사함과 구원, 그리고 교회를 주제로 한 찬송일 뿐 경배와 삼위일체를 주제로 한 찬

송은 거의 부르지 않는다.

- ▲ 표면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지만 우화적이고 풍유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다.
- ▲ 예수님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교주가 강조되고, 정통교회의 바른 교훈보다 교주의 깨달음에 근거한 다른 복음을 강조한다.
- ▲ 일단 죄 사함을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등을 들었다.

장 원장은 특히 “이번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원인 중에 중요한 하나는 구원파의 교리가 이런 도덕불감증 사고를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며 “어쨌건 이단·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부에서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했다.